

아세안 지역 세관 전문가들, 마약류 차단 위해 머리 맞댄다

- 관세인재개발원, 마약 단속 주제로 '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' 개최

-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(이하 '인재원')은 아세안 지역의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(5개국* 15명)하여 6월 17일(화)부터 6월 20일(금)까지 「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」를 개최한다.

*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

-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(WCO) 아·태 지역훈련센터(RTC, Regional Training Center)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~2회씩 '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'를 개최해 오고 있다.
-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, '합동단속작전 공조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단속 실무적용 방안'을 주제로 개최된다.

<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적발량 >

(단위: kg)

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전체	412	148	1,272	624	769	787
아세안발	108	56	170	304	363	445
비중(%)	26.2	37.8	13.4	48.7	47.2	56.5

- 연수회 참가자들은 최신 마약 적발 동향과 우수 단속 사례를 학습하고, 국가별 마약 단속현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.
- 특히 관세청은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·태 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합동 단속작전을 추진할 예정으로, 연수회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공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- 또한 한국 관세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수단속 기법을 소개하고, 참가국 세관들은 밀수단속 현장 업무 시스템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마약 단속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.

□ 유선희 인재원장은 “마약밀수는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로서 국제공조를 통한 단속이 필수적이며, 이번에 논의될 합동단속작전 및 정보공유체계 강화방안은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의 마약밀수 단속 국제공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”이라며,

- “인재원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연수회를 통해 각국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고, 우리나라 국경 수호 및 기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인순 (041-410-8530)
		담당자	사무관	황윤주 (041-410-8555)
	관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최문기 (042-481-7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시태 (042-481-7844)